

## 의지로서의 학문-『여성문학연구』 55호 발간에 부쳐

이즈음의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흥분과 마주하고 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한가운데에서 2년 이상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되었으며, 새 정부의 출범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로 인한 흥분된 마음이 기대보다는 불안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페미니즘이 정치적 선동의 전략일 뿐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유력한 정치인의 언급들을 마주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나와 처지가 다른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라 한다면, 정치인의 임무는 바로 그러한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파악해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이러한 의무들에 게으르지 않길 바라본다.

올해 초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과 대선의 열기 등이 겹쳐 온 나라가 어수선했던 것도 사실이다. 일상의 삶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번 호 『여성문학연구』는 다른 때보다는 다소 가볍게 출간되게 되었다. 이번 호는 특집 논문 2편과 일반 논문 4편, 추천 우수석사논문 1편과 서평 1편으로 구성된다. 원고의 편수는 적지만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다.

이번 호의 특집은 올해 1월 한국여성문학회 학문후속세대 소모임지원 콜로키움 “90년대가 바라본 여성, 여성들이 바라본 90년대”에서 발표된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90년대의 한국 문단은 여성문학이 부흥한 시기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러한 손쉬운 판단에 대해서는 현재의 관점에서 재점검될 여지가 크다. 『여성』 『또하나의문화』 등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80년대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성과를 90년대의 문단이 어떤 방식으로 계승했는지, 90년대 여성문학의 성과가 여성의 언어로 정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 실린 두 편의 특집 논문들이 그러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하나의문화』의 문화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온 김정은의 논문 「누구의 문학인가-문화학술장에 출현한 페미니스트 입장과 페미니즘 비평의 향방」은 『여성』과 『또하나의문화』로부터 제기된 여성문학론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문화 학술장에 페미니즘 비평이 어떤 방식으로 등장했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주로 이 두 매체에 집중하는 김정은의 논문은 『여성』에서 『여성과사회』로 이어지는 그룹이 당대 리얼리즘의 갱신과 관련하여 여성문학의 ‘입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비평적 실천을 보여준 반면, 『또하나의문화』 그룹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남성중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을 지속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1990년대 여성문학담론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한편, “여성이 ‘권위’의 목소리인 적이 없었다”라는 한국 문학사의 자명한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페미니즘 비평의 향방을 점검하는 것이 이 연구의 보다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논문의 필자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가게 될지 기대해본다.

이한나의 「부인된 성적 자기결정과 기이한 평화-김인숙,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을 중심으로」는 1991년에 출간된 김인숙의 장편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을 여성 인물 송은재의 관점에서 다시 읽으며 1990년대 초반의 시점에서 여성이 겪는 상해가 당대의 법문화에 의해 어떻게 축소·은폐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법정이라는 장치 위에 노동자의 외침은 가득히 울려 퍼지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기이한 ‘평화’ 속에 잦아들게 되고 마는 것으로” 재현함으로써 1990년 초의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과연 누구였는지를 문제삼는 것이 김인숙 소설의 성과라고 이 논문은 분석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민주시민의 자리가 허락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김인숙의 소설이 씌어진 이후 2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조차 이러한 문제제기가 타당하게 느껴진다는 점은 이 논문의 의미를, 나아가 변치 않는 현실의 곤란을 짐작하게 한다.

일반 논문으로 실린 4편의 논문들은 특집 논문 못지않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의 글쓰기 전통을 계보화하는 독자적인 여성문학사가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도출되어 왔지만, 여성문학사 서술의 기초 작업으로 그 방법론이 진지하게 토론평의는 했어도 여성문학사의 서술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러한 점에서 여성문학사 서술에 대한 구체적 기획으로서 “여성문학의 기원, 형성, 발전의 궤적을 아카이빙한 자료정전으로서 ‘여성주의’ 정전”을 제안하고 있는 김양선의 논문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여성문학의 계보 만들기-한국여성문학사와 여성문학 앤솔로지의 필요성과 내용을 중심으로」는 그간의 다양한 제안들을 총망라하는 야심찬 글이라 할 수 있다. 김양선이 제안하는 여성문학사 혹은 여성문학 정전은 기존 문학 앤솔로지의 공고한 장르체계나 문학성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더불어 근대초기 「여권통문」으로부터 90년대 문학까지를 폭넓게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문학 정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항정전”이라 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작업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작가-독자 커먼즈”의 현실적 요청에 대한 실증적 응답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앞으로 “문학수용공동체, 해석공동체, 그리고 사회역사적 맥락의 변동에 따라 ‘새로 쓰일 앤솔로지’”로서 제안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다.

김은하의 「냉전체제에 맞서는 월남 여성작가의 글쓰기: 박순녀, 이정호를 중심으로」는 1960년대 문단에서 주목할 만한 목소리를 냈지만 “군소 작가”의 범주에만 묶여 제대로 읽히지 못한 월남 여성 작가 박순녀와 이정호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최근 박완서 보다 앞선 자리에 있는 여성 작가를 발굴하려는 시도로서 박순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문은 박순녀와 이정호의 문학적 성과를 “월남여성작가”라는 특수한 관점에서 분석해본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미가 크다. “월남여성작가”들은 그간 한국문학사에서 이중의 소외를 겪었다고 할 수 있는데, 김은하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 이들 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기억 서사는 냉전주의의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심문에 부치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월남여성작가”들에 대한 연구는 “복수의 문학사”가 아닌 “대안문학사”로서의 여성문학사를 실천하는 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김현경의 논문 「최근 일본군 ‘위안부’ 영화의 냉전 체제 재현 방식: 「아이 캔스피크」와 「허스토리」」은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상영된 두 편의 영화 「아이 캔스피크」와 「허스토리」를 대상으로 이 두 편의 영화가 일본군 ‘위안부’의 발화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꼼꼼이 분석해보는 논문이다. 이 영화들이 기존 ‘위안부’ 영화와 차별되는 점은 “말하는 서발턴”으로서의 ‘위안부’와 “성찰하는 포스트메모리 세대”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나아가 제국 일본에 의한 피식민의 상황이 종결된 이후에도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적 동원과 착취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이 영화들이 고발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 논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공공 기억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가늠해본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한, 미, 일 관계를 재상연하면서 ‘위안부’ 문제의 트랜스내셔널화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이 영화들의 한계로 지적된다.

김효진의 논문 「후조시에서 여자오타쿠로: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여자오타쿠 재현을 사례로」는 201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범주로 부상한 ‘여자오타쿠’를 둘러싼 의미망을 촘촘하게 살피는 논문이다. 2000년대 중반 남자 오타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생겨난 후조시는 2010년대 이후 오타쿠문화의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여자오타쿠라는 범주로 확장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자오타쿠들 사이 호모소셜한 유대감이 생겨나고 이에 대한 자기 재현이 증가했다는 점을 이 논문은 다양한 작품들을 근거로 증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남자오타쿠문화에서 볼 수 없는 여자오타쿠만의 특징으로 적극적인 문화 실천을 꼽는다. 동인지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상호간의 비평으로 이어지는 실천을 통해 이들은 시장 논리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자유로운 해석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김효진의 주장이다. 오랫동안 재현의 대상으로 머물렀던 여성이 문화 생산의 적극적인 주체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확인시켜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 추천된 우수석사논문은 이지은의 「허수경 시의 기억 형상화 방식 연구」이다. 최근 한국여성시사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도가 활발한 가운데 이지은의 논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허수경을 본격적으로 학위논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2010년대에까지 이어진 그녀의 시작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이 논문은 허수경 시에 나타난 ‘기억’과 ‘애도’에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녀의 시가 인간 중심적 사유를 극복하여

타자의 윤리를 실천하고 있는 장면에 주목한다. 시적 주체와 타자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수경 시의 ‘사랑’의 의미를 확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이 논문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여성시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가 오랫동안 ‘모성애’로 한정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한국여성시의 성과를 축소할 요인으로서 ‘모성성의 신화’ 역시 해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작년에 출간되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허윤의 두툼한 연구서 『남성성의 각본들』(오월의 봄, 2021)에 대한 백종륜의 서평 「남성성의 탈자연화와 퀴어 역사기술」도 일독을 요하는 글이다. 이 책은 허윤이 밝히듯 “근대성의 표준으로 설정된 남성을 역사화하려는 시도”이다. 여성성의 신화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비판 받아온 반면, 남성성의 신화는 탐구된 역사가 짧다. 허윤은 이 책을 통해 민족국가 성립 과정에서 삭제된 여러 목소리를 복원함으로써 “헤게모니적 남성성 각본을 탈구축”하고자 한다. 『남성성의 각본들』의 이러한 기획을 차분히 짚어보면서 백종륜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식민지 조선의 남성성이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질 필요가 있다는 점, 퀴어 역사기술이 자주 범하게 되는 ‘현재주의(presentism)’의 문제 역시 섬세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지배적 허구’를 작동시키는 핵심 장치로서의 ‘공모적 남성성’이 더 깊이 추적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허윤의 연구 성과를 단지 지나간 한국 문학사에 대한 분석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지금-여기의 젠더 질서”를 해체할 수 있는 힘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백종륜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음미될 필요가 있다.

여성문학에 관한, 혹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최근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현실의 변화’이다. 이러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들은 고민이 중층적이고, 결론이 열려 있고, 더불어 행간에 흐르는 에너지가 상당하다. 심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줄 한 줄 읽고 쓰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혼탁한 현실로부터 눈 돌리게 해줄 일시적인 해방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현실 자체를 바꾸고 싶은 여전히 강렬한 우리의 의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떤 순간이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자들

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호를 정독해주시면 좋겠다.

2022년 4월 편집위원 조연정